

##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

김 영 희\*\* · 김 신 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1960년대이래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70년대 초에 70% 이상이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족의 의무, 책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초래되었고 산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소비하던 시간과 기능을 사회의 다른 기관이 맡게 됨에 따라 가족의 주된 관심거리는 자녀 양육이 되었다.

인간이 성장하여 한 개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그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접하게 되는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며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관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책임 있는 양육으로 이어지는데, 책임 있는 부모란 단지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항구적인 노력을 하는 부모를 의미한다(하일랜드, 1993).

장병림(1978)은 아동 발달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

양육관은 중요한 형성력을 가진 사회적 영향이라 하고 아동의 행동양식도 가정 내에서 발견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행동양식의 연장, 반동 또는 보상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관은 양육자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조건 등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양육관은 사회 문화적 가치, 신념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지표로서 사회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그 시대 및 사회가 지향하는 아동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형성된다. 부모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자녀의 양육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지선, 1996), 자녀로서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성장발달 연속선상에서 볼 때 자녀의 양육관 정립에 모델로서 작용하여 후의 양육행동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인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임신에서부터 시작되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며 독특한 대인관계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관은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아동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인지,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

\* 본 연구는 2000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향을 미친다(이은수, 1985; 이화용, 1989).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핵가족의 증가로 예전에는 당연시 여겼던 출산경험이나 양육경험에 대한 가족 내 또는 친인척간의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 형성의 단계에 있는 성인 및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교실, 예비 부모교실 등의 육구가 상승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은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자녀 양육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취업의 증가, 양성적 역할분담 육구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실정으로 부모들의 양육관에 근거하여 학습되고 사회화된 여성이 지각하는 양육관은 또한 미래 이들의 자녀에게 역할모델로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관에 따른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별적인 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양육관을 갖도록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 양육에 미치는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김지신, 1996; 김태임, 1991; 상미현, 1998; 최유경, 1999) 장차 부모가 될 예비 부모교육의 대상자인 여대생의 입장에서 지각하고 있는 자녀 양육관에 대한 간호학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래 한 가정을 이루고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여성 특히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받아들이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용하며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인 청년기의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자료를 근거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대상자의 인지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한 행동적 준비과정 차원으로서의 능동적 중재 프로그램인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며 합리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시기인 청년기에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지침으로서의 자녀 양육관을 알아봄으로써 '양육하는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모델로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II. 문헌고찰

양육이란 육아 또는 양아로 표현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 어린 협력을 제공하는 노력을 말하는데 양육관이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적절한 판단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 구성요소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육관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신의 내적 태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언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효과적인 양육에는 분명한 대화, 의미 있는 개입과 상호작용, 돌봄 관계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정분위기와 가족들의 긴밀한 상호작용 및 부모의 교육적이고 일관된 훈육이 중요하다. 가족의 집단성격 또는 가풍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며 이 관계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교육 및 사회화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김재은, 1974; 김지신, 1996; 유안진, 1983; 최경숙 등, 1986).

부모와 자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야 하는 입장이고 부모와 자녀의 접촉양상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행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관적인 경향을 가짐으로써 자녀는 사회적인 습관체계를 구축하여 특유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역할을 학습하게 되고 자라면서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 부모의 양육방식을 세대 전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자신의 부모관계와 연결시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역할학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재의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Simons, Whitbeck, Conger, Wuchyi-In, 1991).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은 사회학습이론과 정신분석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녀가 모델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강화와 처벌의 체계를 통해 행동을 조정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동일시는 그들의 말을 배우고 공격적 행동을 자제하고 도덕심을 발달시키며, 성별에 맞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배우는 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주로 관찰적 학습, 모델링, 대리적 조건(vicarious conditioning)의 기능으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받아들여진다고 제시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아동이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발달을 이루어간다고 보는 반면, 정신분석이론은 성인기의 행동이나 감정이 아동기 때 있었던 무의식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서적 혼란은 아동기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초기 부모-자녀 관계는 후기(later) 발달의 예측요소로서 성인이 된 후의 성격특성이나 인성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전의 관계, 태도, 기대,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자기가 이룬 가정에 그대로 가져와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역할 하는 기능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아동기로부터 성인기까지의 경험은 연속적이어서 초기의 관계적인 경험이 자녀의 그 당시 또는 그 후의 적응에 중요하므로 개인적 기능과 관계적 기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초기 관계의 중요성은 자녀가 내면화하는 역동적인 인지적, 정서적 패턴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가족 특히 자녀와 주 양육자 사이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경험에 반응하여 조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응성을 보인다. 적응양상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변화는 가정이나 양육환경에 기초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며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기도 한다(박성연 등, 1996).

이와 같이 자녀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리적, 신체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인 양육은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사회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또한 사회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자녀로 하여금 정서적, 사회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회화시키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양육기능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보여지는 양육관에 기반하며 이러한 양육태도나 행동은 역사적 조건이나 지리적 풍토, 전통과 문화, 사회적 상황, 가정의 구조와 환경 그리고 부모의 교육목적 및 태도에 따라 변화되고 형성되는 것으로 보통 Baumrind(1973)가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및 허용적(permissive)인 것으로 유형화시킨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Baumrind(1973)는 부모의 행동영역으로 통제(control), 성숙에의 요구(maturity demands), 의사소통(communication), 온정(nurturance)을 측정하였으며, 여기서 통제란 사회화 기능으로 간주하여 자녀로 하여금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형성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수정하며 부모 기준의 내재화를 촉진시키고자 의도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부모의 온정은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편안한 상태를 돌보기 위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뜻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을 경우에는 권위적, 온정은 높고 통제가 낮을 경우는 허용적, 통제가 높고 온정이 낮을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으로 특징 지워진다.

세 가지 유형에 따른 부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통제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지 있게 생각하므로 자녀들이 정해진 행동표준을 따르도록 하며, 그 표준에 반대되는 행동을 자녀들이 했을 때는 매섭게 벌을 주고 다른 부모에 비해 냉담하고 덜 온정적이다. 허용적인 부모는 자기표현과 자기규제를 가치있게 생각하므로 자신을 표준적인 양육자 또는 모델이기보다는 자원제공자로 생각하며 자녀에게 거의 벌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비지배적이고 비요구적이며 비교적 온정적이다. 반면에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그들의 태도에 내포된 이유를 설명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부모들은 자녀를 지도하는 능력이 자신감이 있고 자녀의 흥미, 인격, 독특한 인성을 존중한다. 이들은 사랑을 주고 일관성이 있으며 요구적이고 자녀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반면 행동기준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확고하고 필요한 벌은 기꺼이 준다.

양육행동은 각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애정의 정도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애

정적인 측면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적, 헌신적이며 칭찬과 상담 및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면을 보이고 적대적인 측면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제적인 측면은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를 강조하고, 벌을 주고, 비난하며 설명이나 이유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훈육 양상을 보이고 자율적인 측면과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김지신, 1996에서 재인용, 상미현, 1997; 진미현, 1994).

부모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통한 가족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역할을 서로 맡아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어떤 가족은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또 다른 가족은 생의 주기변화에 맞추어 행동 패턴을 바꾸기도 한다. 역할은 문화적 규범에 의해 정의되고 개인은 기대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의지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들은 야망이 있고, 지적이며, 독립적이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반면, 딸은 친절하면서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덕목도 아들에게는 책임감, 독립심 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딸에게는 예절, 효성심, 겸손 등을 기대한다.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서 기대하는 성 역할의 차이점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유래하며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출생 시부터 그 자녀의 성별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기대하여 아들은 좀더 남성답게 딸은 좀더 여성답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양육태도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리하여 자녀를 사회화시킨다(권이중 등, 1988; 박성연 등, 1996).

이상에서 볼 때 성장발달 과정 중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양육관은 앞으로의 자녀 양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행동의 예측요소를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주 양육자가 여성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모델이 주로 어머니였으므로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서 양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중심 간호접근 측면에서 간호사는 역할행동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역할전이를 돕기 위한 사회화 준비로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발달특성상, 여대생은 이전의 발달 단계를 통해 성취된 모든 것을 통합하고 또 주체성을 형성하는 청년기 단계에 있으며 성의 성숙으로 이성에 대

한 관심이 강해지고 모든 생활과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자아의식이 발달하여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결혼과 가정 생활의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책임 있는 부모로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건강한 가족을 이루도록 적절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준으로서 미래 양육자인 여대생이 지니고 있는 자녀 양육관을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녀 양육관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E 여자대학교 1-3학년에게 학중인 여대생 137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대한 참여를 동의하는 학생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1998년 12월부터 1999년 3월에 걸쳐 서울시내에 위치한 E 여자대학교에서 연구목적을 설명한후 이를 허락한 여대생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료는 연구목적 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이라는 설명도 부연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여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쓰도록 하였는데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본인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어떻게 양육할 것 인지의 양육관에 대해 1개 이상 적도록 하였으며 서술내용의 양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하였다. 질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였으나, 자신의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된 의사소통 기록물의 내용적 특

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내용분석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 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자간에 내용의 검토와 의논을 통해 추출하였다. 대상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같은 의미와 비슷한 표현을 같은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주제 분류과정에서는 가능한 대상자들의 기록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기 위해 주제를 세분화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주제를 포괄하는 공통되는 특성끼리 묶어 범주화하였는데, 각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수량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집계하고 분석자들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Holsti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 분석에서 신뢰도는 90%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99.7%로 연구자간 일치도가 높았고,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3인에 의해 검증되었다.

$$\frac{2M}{N1+N2} = \frac{744}{746} = 99.7\%$$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연령(세)	20	83	60.6
	21	37	27.0
	22	17	12.4
출생순위	첫째	78	56.9
	둘째	52	38.0
	셋째	7	5.1
주양육자	어머니	98	71.5
	할머니	22	16.1
	대리자	17	12.4
가족형태	핵가족	91	66.4
	대가족	46	33.6

대상자의 연령은 20-22세의 범위로 20세가 가장 많았으며(60.6%), 출생순위별로는 첫째(56.9%), 둘째(38%), 셋째(5.1%)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양육은 어머니가 71.5%로 가장 많이 주로 어머니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의 비율(66.4%)이 대가족(33.6%)의 약 2배를 차지하였다.

##### 2. 대상자의 자녀 양육관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녀 양육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의미있는 진술은 374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34개로 다음과 같다: '안내자로서의 모범적인 부모역할'(8.6%), '스스로 결정'(8.0%), '사랑표현'(6.2%), '인성교육'(4.8%), '채찍과 당근'(4.5%), '인격존중'(4.3%), '건전한 생활습관'(4.1%), '대화'(3.7%), '욕심조절'(3.7%), '살아있는 경험제공'(3.7%), '넓고 풍부한 시각제공'(3.5%), '자유로운 선택'(3.5%), '너그러움'(3.5%), '배려'(3.0%), '같이함'(3.0%), '예절교육'(2.4%), '자연스러움 추구'(2.4%), '자신의 인생을 찾음'(2.4%), '신뢰'(2.1%), '직접 키움'(2.1%), '격려'(2.1%), '올바른 성 의식 함양'(2.1%), '바람직한 가정환경'(1.9%), '최선을 다함'(1.9%), '이해'(1.6%), '심리적 친밀감'(1.6%), '공평하게 대함'(1.6%), '심신의 건강추구'(1.6%), '관심'(1.3%), '신앙생활'(1.3%), '개성존중'(1.3%), '협력'(1.1%), '열린 가정'(0.8%), '긍정적 태도'(0.8%).

위의 34개의 주제는 12개로 다시 범주화되었다: '성숙한 부모됨'(15.5%), '수용'(11.5%), '자율성'(11.5%),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9.4%), '열의'(9.1%), '노력함'(8.8%), '교육'(8.8%), '감정적 결속'(7.8%), '존중'(7.2%), '체벌'(4.5%), '지지'(3.2%), '환경조성'(2.7%).

각 범주화를 대상자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결과 '성숙한 부모됨'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58명으로 15.5%를 나타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대상자들은 아이에게 지나친 요구와 기대는 하지 않고 아이의 능력에 맞추어 조절하며 욕심을 버리겠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와 태도에 있어서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지나친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않고 직업도 갖고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가 아이와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며, 직업을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양육행동의 큰 문제점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최적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는 Belsky (1984)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것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은 일관적인 태도로 주관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점이나 부모가 모델로 작용되어 이것이 자녀의 동일시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최초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수용'의 범주를 살펴볼 때, 대상자들은 자녀에 대해 큰 마음과 생각으로 너그럽이 대하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며 자신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공감을 나타내었으며 믿음을 주고 자녀를 신뢰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인간적 이해의 폭이 넓고 이로 인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온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는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화용(1989)도 수용적 태도는 자녀들의 협동성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율성'의 범주에는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원영(198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에게 의존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대 초반의 젊은 연령층이므로 독립심을 길러주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에는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대상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측면에 걸쳐 건전하고 절제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한 생활양식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상자들의 양육관은 실제적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열의'의 범주에는 독서 등의 간접경험이나 사회적인 적용을 통해 넓고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이고 살아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발달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게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운다는 내용에서 과거부터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했던 전통적인 가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력함'의 범주에는 아이와 함께 있고 같이 지내며 충분한 대화를 하고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자 하며 대화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양육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교육'의 범주에는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의를 지키는 예절교육과 올바른 성 의식을 갖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양육관은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태종의 태아 때부터 시작되는 태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성교육은 최근 범람하는 성 정보와 유해한 성 문화의 영향으로 각종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성교육에서 양성 평등적인 내용은 대상자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받고 양육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감정적 결속'에서는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고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분신이라는 의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애정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모자간의 인간관계는 애정이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애정이 성격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자녀는 어머니의 애정적 표현과 심리적 친밀감에 의해서 의존하고 안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떠한 다른 양육적 요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다른 양육적 요소는 애정에 의해서만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존중'에는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공평하게 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대상자들은 자녀를 성인과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놓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녀의 개인차, 개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모든 아동은 같지 않으므로 신체적, 정서적, 지적, 도덕적인 모든 특성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다른 아동과의 차이

를 나타내는데(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1999), 대상자들이 자녀의 '자기다움'을 의미하는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양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내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체벌'에는 매도 들고 엄하게 키운다는 채찍과 당근의 의미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양육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체벌을 가하는 유형으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불안정, 복종적, 반항적, 공격적,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 대상자들은 체벌을 훈육의 양육적 요소로 잘못 오해하지만, 이는 아동학대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시 올바르지 못한 양육적 요소로 분명하게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지지'에는 격려와 협력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자녀를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조용히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볼 수 있다. 즉, 대상자들은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을 내려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닌 지지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조성'에는 열린 가정과 바람직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즉, 자녀의 1차적 환경인 가정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조성하며 자녀의 발달에 기여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은 '체벌'의 범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의 올바른 양육관은 강화시켜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 간호학문에서도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2〉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큰 마음과 생각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절대 체벌을 가하지 않을 것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깨우칠 때 까지 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때리지 말고 말로 잘 타이르며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아이에게 이유없는 화는 내지 않을 것 화부터 내면서 대하지는 않을 것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순간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무슨 일을 했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너그러움 (13/3.5)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신경을 경청해 주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주어야 아이의 미래의 모습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도록 노력 아이의 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되도록 많은 편지를 쓰고	관심 (5/1.3)	
많은 질문들에 참을성있게 대답해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반갑게 맞아주어 차근차근 알려주어서 첫째나 막내보다 둘째에게 많은 신경을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의 아이들과 형제처럼 지낼 수 있게 해 주면서 여러 사람들과 사귄 줄 알게 하고 친구들과 사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어린이절을 행복하게 좌절하고 상처받을 때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배려 (11/3.0)	수용 (43/11.5)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 아이의 행동과 잘못을 이해하는 부모 자식에 대한 이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편안한 상대자 아이를 잘 이해하며	이해 (6/1.6)	
나의 아이가 자신이 부모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매를 한번 드는 것보다는 너를 믿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너를 믿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녀를 믿어야	신뢰 (8/2.1)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혼자 일어설 수 있게 스스로 느끼게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찾도록 자율적으로 스스로 처리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기르도록 자녀를 과잉보호하지 않는 것 독립심이 강한 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부모는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강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중시하며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율과 책임을 우선적으로 어릴 적부터 자율적으로 길러야 독립심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확실하게 터득해야 할 많은 경험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도록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 줄 것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주적으로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줄이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일들을 처리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기르고	스스로 결정 (30/8.0)	자율성 (43/11.5)
자유를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자유로운 교육 좋아하는 친구 사귀는 것을 무조건 막지 말아야 개방적으로 아이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만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자유로운 선택 (13/3.5)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아이옆에서 같이 나아가는 부모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통해 아이의 친구처럼 지내고 친구같은 엄마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고 인형놀이, 공기놀이, 만화영화도 보며 행복해 하고 각종 놀이도 하고 휴일이면 김밥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도 산책이나 외식,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공유하도록	같이함  (11/3.0)	
아이와의 대화 아이와 대화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양육의 가장 중심에 놓고 부모와 자녀간의 스스럼 없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 알아보고 자식과의 대화를 가장 중요시 대화 부드럽고 대화를 우선으로 하는 태도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실현하고 아이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고민을 부모님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대화  (14/3.7)	노력함  (33/8.8)
자신의 일을 추스릴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전적으로 아이보살피는 일에만 열중 어머니가 직접 키워야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고 꼭 내가 키우고 남이 키우지 않게 직장은 다니지 않을 것 아이를 기르는 동안만은 아이에게 전념하고	직접 키움  (8/2.1)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사랑의 칭찬 사랑으로 정이 담긴 교육 최대한의 자유와 사랑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아이를 한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사랑의 표시를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아이들이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에 대한 애정 표현의 말도 되도록 많이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칠 사랑 표현도 중요하다고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내 아이를 믿으며 항상 사랑으로 감싸 사랑만으로 가르치고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도록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심어주려고 사랑 내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미래의 나의 자식에게도 줄 수 있는 애정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나 충분히 받는 온화한 사랑의 태도가 사랑이 있고 주체적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사랑표현 (23/6.2)	감정적 결속 (29/7.8)
엄마와 아이의 친밀한 접촉 가족간의 결속감을 심어주고 유대감을 느끼게 친구와 같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	심리적 친밀감 (6/1.6)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비인격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아이들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의견을 존중해		
상처를 줄 것 같은 말과 행동은 아예 하지 않으려	인격존중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식적으로 상스러운 욕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16/4.3)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		
자녀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절대 부담을 주지 않을 것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좀 더 알려고 노력해야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여		존중
깔아 닦추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장점을 세워주고		(27/7.2)
다른 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해 주고	개성존중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5/1.3)	
자유롭게 생각하고 독특한 개성을 갖게		
공평하게 치우침이 없이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고		
태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 주려고	공평하게 대함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게	(6/1.6)	
공평하게		
좀 뛰어나도 부족해도 그냥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칭찬의 말을 먼저 하는 격려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인정해 주어야 어린이의 마음에 자신감을 키워 아이들을 향한 칭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언제나 격려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 (8/2.1)	지지 (12/3.2)
아이의 조용한 협력자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끔 하고자 하는 일은 하도록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게 도와주고	협력 (4/1.1)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열린 가정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 희망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분위기를 조성	열린 가정 (3/0.8)	
스스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사랑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 올바른 가정환경과 가정교육 함께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건 풍부한 사고의 발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무리한 학원 교육보다는 집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배경을 충분히 마련	바람직한 가정환경 (7/1.9)	환경조성 (10/2.7)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아이에게 많은 동화를 들려주고 돈의 의미를 가르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 주고 문화생활을 활발히 하는 교양을 풍부히 하고 창의적인 아이가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친 독서를 적극 권장 책을 많이 읽도록 세상을 보다 넓게 볼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공부로 출세를 시키고 많은 책을 읽도록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격 성장에 보탬이 되는	넓고 풍부한 시각 제공 (13/3.5)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을 직접 보게 이곳 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과 접촉하게 많은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꽤나 많이 시킬 것이다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어릴 때에 많은 것을 접하게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도 시켜서 부모가 알고 있는 여러 목적지들과 길들을 보여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경험 제공 (14/3.7)	열의 (34/9.1)
나름대로의 주관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낳아 뉘으면 최선을 다해 키우고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함 (7/1.9)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성격적으로 너그러운 아이로 정직하게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과 인간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도록 정서적 함양에 인간교육이 먼저가 되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를 길러주고 마음이 풍부한 아이로 진실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로 여유로운 인간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늘 솔직하도록 비굴하지 않게 당당히 자신의 일에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법을 깨우치도록	인성교육  (18/4.8)	교육  (33/8.8)
공부보다는 예의범절을 더 중히 엄격한 도덕심과 예절 훈련 경우바름 어른을 공경하도록 예의를 지키며 전통적인 예절과 어른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예의를 잘 아는 아이로 어른에 대한 예의를 아는 아이 사람을 잊지 않는 자세를 가지도록	예절교육  (9/2.4)	
차근차근 성교육을 시켜서 아이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성역할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정립토록 남녀 차별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성에 대해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성 의식 함양  (6/2.1)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어릴 때는 무조건 나가서 놀게 자연과 자주 접하도록 하고 자연에서 실컷 뛰어 놀게 하고 자연에서 흠을 느끼며 뛰어 놀고 자연과 가까이에서 자라는 반드시 모유를 먹일 생각 모유가 얼마나 영양가가 높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이에게 소중한지 반드시 모유로 아이를 키우고 자연분만이 아이와 산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러움 추구 (9/2.4)	
강하고 바르게 절도있고 규칙적인 생활 절약정신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지 않고 동기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끈기있게 하는 버릇을 길러 힘든 일은 겪도록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고생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키면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고 습관을 들일 것이며 근검하는 습관을 꼭 몸에 베이게 건전한 생활관을 심어주고 근검, 절약에 대한 교육에 소홀해서는 안되겠다고	건전한 생활습관 (15/4.1)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35/9.4)
육체적 건강에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도록 식단도 치밀하게 짜서 모든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강하게 키우고 일주일 식단을 짜 두어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 심신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심신의 건강추구 (6/1.6)	
신앙의 터 위에서 양육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길러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어릴 때부터 데리고 가서	신앙생활 (5/1.3)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지나친 관심이 아닌 한걸음 물러서서 지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조기교육은 시키지 않을 것 조기교육을 시키지 말고 지나친 요구로 부담을 주지 않고 지나친 강요나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기대와 욕심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학습지와 과외 등을 시키지 않을 것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서 아이를 괴롭히지 않을 것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그 애가 어떻게 되었을 좋겠다. 뭘 시키자. 어떻게 하자란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아이의 학습능력을 고려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욕심조절  (14/3.7)	성숙한 부모됨  (58/15.5)
부정적인 말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 태도  (3/0.8)	
하루 종일 애와 부대끼며 살면 신경질이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여성이 되는 것이 필요 부모님도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으며 부모님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너무 현신하지 않는 것 지나친 현신은 하지 않겠다 나 자신을 찾아가면서 자녀의 성장을 지켜 볼 내 아이들을 잘 떼어 놓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자신의 인생을 찾음  (9/2.4)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실천을 통한 교육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 양육의 기본방향과 철학 남편도 양육에 꼭 참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어른이 되도록 자녀와의 약속을 잘 이행하면서 이성적이고도 일관성있는 태도로 안내자로서의 부모역할 아이가 신뢰를 갖도록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성 있는 부모 조연자, 안내자로서 주관을 가지고 신중하게 키울 나의 삶이 아이들에게 세상 사는 법이 되도록 한 개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자신이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내 행동으로 보여서 스스로가 깨닫게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따뜻하고 친절한 부모가 되어야 부모가 먼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부부간에 자식 교육법에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부모는 항상 같은 편이 되어서 자식을 교육시켜야 남편과 상의하고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일관된 모습 매를 들 때는 자녀의 잘못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아이들에게 항상 일관된 태도 아이를 일관성있게 돌보고 일방적인 흑백논리를 강요하기 보다는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제시해 주되 아이들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며 의지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의 모범적인 부모역할 (32/8.6)	성숙한 부모됨

〈표 2〉 계속

의미있는 자료	주제 (빈도/백분율)	범주화 (빈도/백분율)
체적과 당근의 원칙으로 필요하면 엄격하게 통제 매도 들어야 하고 체벌 사랑의 매 따끔하게 혼내고 지키도록 잘못한 일에 합당한 벌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부모가 다같이 엄하게 해서 바로잡아 야단을 치지 않는다면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말을 잘 안듣게 되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 어릴 때는 많이 때려가며 가르쳐야겠다는 엄하게 키우고 어릴 때는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꾸밈하고 엄격한 태도가 아이가 잘못된 만큼의 벌을 받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를 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체적과 당근 (17/4.5)	체벌 (17/4.5)
계	374	100.0

## V. 논 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청년기는 성숙한 개인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부모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일 등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여대생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장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관은 앞으로 부모로서의 양육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진술한 374개의 의미있는 진술은 34개의 주제로 축약되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30개의 주제('안내자로서의 모범적 부모역할', '사랑에 대한 표현', '인성교육', '체적과 당근', '인격존중', '대화', '욕심조절', '살아있는 경험제공', '넓고 풍부한 시각제공', '너그러움', '배려', '같이함', '예절교육', '자연스러움 추구', '자신의 인생을 찾음', '신뢰', '직접 키움', '격려', '바람직한 가정환경', '최선을 다함', '이해', '심리적 친밀감', '공평하게 대함', '올바른 성 의식 함양', '관심', '개성존중', '신앙생활', '협력', '열린 가정', '긍정적 태도)는 부부 또는 자신이 양육의 주체로서 양육에 대한 준비 또는 강

조하고자하는 내용이었으며 4개의 주제('스스로 결정', '건전한 생활습관', '자유로운 선택', '심신의 건강추구)는 자녀가 능동적 주체가 되어 행동하기를 강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태도에 대한 면담을 통해 가정교육의 덕목으로 '정직'과 '선량' 혹은 '술, 담배 금지', '부모 자신의 모범적 행동' 등을 강조한 조성숙(199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자녀 양육관 중 '건전한 생활습관'과 '안내자로서의 모범적 부모역할'이 같은 맥락의 주제로 나타났다. 또한 조성숙(1995)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예의를 가르치는 부모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성교육의 부재를 지적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등을 통해 타인과의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교육하고자 하는 점과 올바른 성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점이 차이점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대상자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와 최근 들어 심각해진 성 문제와 관련하여 자녀교육에서의 성교육 필요성 강조 등 사회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12개의 범주 내용을 살펴보면 11개의

범주는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한 것으로 '성숙한 부모됨', '수용',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열의', '노력함', '교육', '감정적 결속', '존중', '체벌', '지지', '환경조성' 등으로 나타났고 1개의 범주는 양육자로서 강요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 중에서 '수용', '열의', '노력함', '감정적 결속'은 애정적 측면을 나타내고, '자율성', '존중', '지지'는 자율적 측면을 보여주며, '체벌'은 훈육에 있어서의 엄격함을 의미하는 통제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대상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관은 주로 애정과 자율측면이 강조되고 상황에 따른 훈육을 위한 체벌이 첨가됨으로써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하는 양육행동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신체적 체벌로 금지와 규정 어김을 해결하기 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 자주 설명을 해줌과 동시에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어 격려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규정과 금지를 제기하고 강요하며 신체적 체벌을 우선시 하는 양육행동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김태임(1991)이 120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행동 유형분석에서 애정적-자율적 성향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애정적-통제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양육적이고 덜 제시적인 경향이 나타나며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양문현, 1984; 이은수, 1985)에서 보듯이 본 연구 대상자들이 여대생이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인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은 Baumrind (1973)의 3가지 양육행동 유형인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유형에 비추어 볼 때 권위적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었다. 즉 이들은 자녀의 인격, 개성을 존중하는 한편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대화, 이해, 너그러움, 배려 등으로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양육 시 자녀의 사회화를 위한 훈육방법 중 하나로 체벌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만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간과하였던 성에 대한 교육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가정환경 조성의 올바른 방향제시로 심신의 건

강을 고양시키는 열린 가정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양육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주 양육자는 어머니 71.5%, 할머니 16.1%, 보모 12.4% 등 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모 한쪽에 의한 어머니만의 양육이 아닌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를 주장하고 양육과정 중 성별에 의해 강조되는 점에서의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강요보다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부모가 함께 준비된 상태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더 자율지향적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애정지향적이라는 연구와 딸의 대인관계 성향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신과 타인 수용적 대인관계 성향에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동시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사랑과 정서적 유대감 등이 강조되고, 감정적 차원이 부모-자녀관계의 중심요소로 간주된다고 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진민희, 1994).

이상에서 연구대상 여대생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로서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공평함 그리고 심리적 친밀감에 바탕을 두면서도 애정과 자율적 양육행동에 적절한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합한 긍정적인 자녀 양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역할을 학습하게 되고 자라면서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 자녀에게 자신 부모의 양육방식을 그대로 전수할 가능성이 크며 과거 자신의 부모관계와 연결시켜 역할학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대생의 양육관은 실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가졌던 부모의 기대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초기환경, 문화적 가치, 부모의 역할수행 태도 및 행복한 결혼생활, 부모의 역할수행 지각정도, 자녀의 성, 수 그리고 특성에 대한 만족도, 자기 중심적 또는 가족 중심적의 정도, 결혼의 균형 유지의 조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반응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보다도 이를 자녀입장에서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여러 가지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기 경험과 후의 양육행동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아동기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양육의 어려움이나 역기능이 있었을 때 이를 감싸주는 지지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젊은 시절에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사람과 오랜 동안 함께 함으로써 관계문제를 재작업할 수 있을 때, 다른 관계모델을 갖게되어 자기가 자랄 때의 어려움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김희주, 1997; 박성연 등, 1996; 진민희, 1994).

그러므로 현재의 긍정적인 양육관을 강화시켜 주고 발달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자극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심리적 기능과 대인관계 경험을 지지하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지식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결론 및 제언

양육은 임신에서 시작하여 분만 후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른 경험세계의 변화 없이는 자신의 성장기 동안 학습된 유형의 양육행동을 자녀에게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주로 여성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합리적인 가치관이 정립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추구하는 시기에 있으며 미래 주 양육자가 될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자녀 양육관을 분석한 후 양육행동의 유형에 따른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22세의 범위로 대상자의 양육은 주로 어머니(71.5%)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대생이 지각하는 자녀 양육관에 대한 분석 결과, 의미있는 진술이 374개 이었으며 이는 34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이를 범주화 한 결과, 12개의 범주로 묶여져 빈도에 있어서 '성숙한 부모됨', '수용', '자율성',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열의', '노력함', '교육', '감정적 결속', '존중', '체벌', '지지', '환경조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주들은 양육행동의 유형 분류에 많이 적용되는 애정-적대, 자율-통제라는 2개의 차원으로 볼 때, '성숙한 부모됨', '건강한 생활양식 추구', '교육', '환경조성' 등이 바탕이 되어 '수용', '열의', '노력함', '감정적 결속'과 같은

애정적 차원과 '자율성', '존중', '지지'와 같은 자율적 차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훈육을 위한 통제로서 '체벌'이 빈도별로 10번째 범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에서 연구대상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은 애정과 자율에 기반한 민주형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Schaefer도 가장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유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양육관을 지지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자녀를 수용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자녀의 가정 내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등 긍정적이고 상호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양육행동으로 연결시키도록 돕는 예비부모교육 및 상담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미래 양육자로서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양육은 부모역할 중의 하나이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세대간 양육관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권이중, 김정임, 김승훈 (1988). 한국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서울: 계몽아동연구소.
- 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공저 (1999). 아동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남 (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일치정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 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희주 (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연 (1991). 인간발달 I. 서울: 교육과학사.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공역 (1996). 부모-자녀관계. 서울: 학지사.

상미현 (199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문현 (1984). 도시 주부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유안진 (1983). 육아론. 서울: 문음사.

\_\_\_\_\_ (1994).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수연 (1998). 양육의 개념분석. 아동간호학회지, 4(1), 76-85.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용 (198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성숙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병립 (1978). 이상성격 심리학. 서울:시사문화사.

조성숙 (1995). 가족의 자녀교육.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서울: 사회 문화 연구소 출판부.

진민희 (1994).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연구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경숙, 이은혜, 김경희, 정문자, 지혜연 공저 (1986). 어린이의 발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최유경 (1999). 부모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일랜드, D. (1980). 격려하는 부모 성공하는 자녀. 박영옥(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3.

Bandura, A. (1977).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enedek, T. (1970). Parenthood. Little, Brown

and Company(Inc.).

Schaefer, E. S., Bell, R. Q.,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a Genetic Psychology, 95, 83-104.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Wuchyi-In(1991).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59-171.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key concept: University Women, View on Childrearing

## The View on Childrearing of University Women\*

Kim, Young Hee\*\* · Kim, Shin Jeo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quire about the view on childrearing of university women for the purpose of building up the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tting up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The subjects were 137 university women who were freshmen to junior in one women's university in Seoul.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in 1998 to March in 1999 and the contents which subjects wrote down were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 This Study Supported by Dongguk University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1. The age range of subjects were 20-22 years and main rearer was her mother(71.5%)
2. The view of subjects were revealed by 374 statements and then tied together 34 themes: 'exemplary parent model as a guider'(8.6%), 'determination for oneself'(8.0%), 'expression of love'(6.2%), 'humanity education'(4.8%), 'carrot and stick'(4.5%), 'respect of personality'(4.3%), 'sound living habit'(4.1%), 'conversation'(3.7%), 'regulation of greediness'(3.7%), 'supply of live experience'(3.7%), 'supply of broad and substantial vision'(3.5%), 'free choice'(3.5%), 'broad-mindedness'(3.5%), 'consideration'(3.0%), 'doing together'(3.0%), 'propriety education'(2.4%), 'pursuit of naturalness'(2.4%), 'looking for one's life'(2.4%), 'confidence'(2.1%), 'rearing by oneself'(2.1%), 'encouragement'(2.1%), 'cultivation of right sexual senses'(2.1%), 'desirable home environment'(1.9%), 'doing one's best'(1.9%), 'understanding'(1.6%), 'psychological intimacy'(1.6%), 'treat fair'(1.6%),

'pursuit of physical, psychological health'(1.6%), 'concerning'(1.3%), 'religious life'(1.3%), 'respect of individuality'(1.3%), 'cooperation'(1.1%), 'often-minded family'(0.8%), 'positive attitude'(0.8%).

34 themes were categorized by 12 categories once more: 'mature parenthood'(15.5%), 'acceptance'(11.5%), 'autonomy'(11.5%), 'pursuit of healthy life style'(9.4%), 'eagerness'(9.1%), 'making efforts'(8.8%), 'education'(8.8%), 'emotional bonding'(7.8%), 'respect'(7.2%), 'corporal punishment'(4.5%), 'supporting'(3.2%), 'composition of environment'(2.7%).

In conclusion, we could expect that university women had a democratic view on childrearing with love and autonomy for a base. So we need to offer them nursing implementations such as preliminary parenting programs and parenting consulting in order to promote positive and interactional parent-child relationship by strengthening their desirable view on childrearing.